

대학평의원회회의록

회의소집통지일자	2017.04.10
의원수 : 11명	출석의원수 : 8명

1. 회의일시 : 2017년 4월 20일(수) 오전 11시
2. 회의장소 : 대전보건대학교 9동 2층 대회의실
3. 의원 출.결 현황

가. 출석의원 : 이명환, 김택균, 양용원, 이명구, 박종운, 장수진, 황철하, 김석주
 나. 불참의원 : 김원수, 김흥수, 이현진

4. 회의안건

제1안 : 2016회계년도 교비결산(안) 자문.
 제2안: 대학구조개혁 방안(학과정원조정 포함) 심의.




5. 회의내용

(의 장) 의장 의원들께 인사하고 대학평의원 운영규정 제10조에 의해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인 8명이 출석하여 개회를 선언하다. 이어 2016회계년도 교비결산(안) 자문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회의를 시작하다. 이어 주무부서의 설명을 요청하다.

(총무팀장) 사무처 총무팀장 등단하여 2016회계년도 교비결산(안)을 확정하기까지 주요 경과를 설명하고, 2016회계년도 교비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하다.

수입부분 등록금 수입 3백3십2억3천7백만원으로 전기대비 약 1억4천만원여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복학생 미등록자와 자퇴생, 신입생 입학자원 감소, 평생교육원 수강신청자 하락 등으로 수입 감소 요인이 있음을 말하다. 전입 및 기부금수입은 전기대비 6천여만원 감소하였고, 국가보조금 수입은 전기 대비 약6억원 증가하였으며, 교육부대수입은 전기대비 1억4천여만원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는 입시전형료 수입이 소폭 상승함을 말하다. 교육외수입은 2십4억3천7백만원이며, 투자와 기타자산 수입은 대학사택 임차보증금 회수 등으로 5억9천만원이며,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1백3십만원으로 노후차량의 매각대이며, 고정부채상환 1억5천만원은 임대보증금을 회수한 것이며,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은 1십3억7천1백만원으로 세입총액은 5백4십7억9천4백만원임을 보고하다.

세출부분에서 보수는 2백7억9천만원이며, 전기대비 승진 및 호봉상승분, 명예퇴직금 등으로 약12억 증가하다. 관리운영비는 전기대비 12억2천만원정도 감소하였으며,

의 장 이명환		평의원 김택균		평의원 장수진	
------------	---	------------	---	------------	---

연구학생경비는 전기대비 5억4천만원이 증가함. 이는 국가장학금 수입증가로 학생지급 증가분이며, 교육외 비용은 자퇴생 등록금 반환 등으로 1억7천5백만원이며, 투자와 기타자산의 임차보증금 지출의 1억6천8백만원은 대학관사 이전에 따른 보증금이며, 5억5천2백만원은 자금예치에 따른 예금이자수입 재적립과 기부수입이 있으며, 고정자산 매각지출은 기계기구 등 도서매입, 설계용역대가 및 공사선급금 등이 14억8천5백만원이며, 고정부채상환은 생활관 임대료 환급금으로 1억5천만원이며, 미사용 차기 이월자금은 11억8천4백만원으로 세출총액은 5백4십7억9천4백만원임을 보고하고, 이어 학생복지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교내식당과 교내서점의 단기운영 및 교내식당 직영에 관해 보고하다.

(의 장) 의원들에게 2016회계년도 교비회계 결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자문사항이 있으시면 자문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박의원) 서점운영 수입 및 인건비의 포함 계정에 대해서 질의하다.

(총무팀장) 잡수입 계정 및 시설용역비 계정에 포함되었음을 설명하다.

(의 장) 서점의 운영수익에 대해 질의하다.

(총무팀장) 서점은 학생복지차원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학생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최대한 대학의 이익금은 적게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말하다.

(이의원) 서점이 꼭 교내에 있어야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다.

(양의원) 학교내 복지시설을 외주에 맡기다 보면, 학교 수익면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판매가격이 올라가니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임을 언급하다.

(김의원) 교직원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식사를 해야 흑자운영되는 상황이므로 직영보다는 외주 전문업체에 주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효율적인 운영임을 언급하다.

(박의원) 감가상각비를 전출해서 건물의 보수나 신축에 대비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꼭 고려해야 할 사항임을 말하고, 식당운영에 대해서도 대학에서 직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외부업체에 임대를 주는 것이 타당할 것임을 언급하다.

(김의원) 2016회계년도 교비 결산(안)은 자문결과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발의하다.

(의원들) 동의와 재청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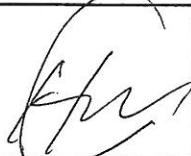


(의 장) 2016회계년도 교비결산(안)에 대한 의원들의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사표시해주시기를 질의하다.

(의원들)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없음을 말하다.

(의 장) 2016회계년도 교비결산(안)이 참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다음안건인 정원조정에 대해서 기획예산팀장의 설명을 요청하다.

(기획예산팀장) 등단하여 2019학년도 대학구조개혁 기본(안)에 대해서 보고하다.

구조개혁방향설정은 입학자원의 감소와 교육부의 정원조정정책, 대학의 생존전략 등을 고려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유사학과의 통합을 우선순위로 두고 만들었으며, 방법으로는 성장잠재력, 유망직종분석, 특성화를 위한 정원조정 연계성을 고려하였음을 말하다.

의 장 이명환		평의원 김택균		평의원 장수진	
------------	---	------------	---	------------	---

방법으로는 학과평가를 실시하여 하위그룹 위주로 통합하여 특화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학과 신설 및 폐지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음을 말한다. 기대효과로는 4차산업 혁명에 의한 교육환경변화 대응, 학생만족도 향상시켜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있으며, 기 말씀드린 학과평가지표로는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중도탈락율, 졸업률, 취업률로 진행되었으며, 결론적으로 컴정과와 바이오정보과를 통합하여 의료IT융합과로, 마케팅관리과 경영정보과 금융보험과는 헬스케어경영학부로 변경하고자 함이며, 방송문화콘텐츠과는 헬스케어콘텐츠과로 거듭나고자 함임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통합과는 트랙제로 운영할 예정이며, 헬스케어경영학부는 세부전공을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며, 입학정원조정인원은 단기간에는 일부 편제정원 미완성이어서 56명이 감원이 되는데 편제정원이 완성되면 전체적으로 4명만 감소되는 것임을 말한다. 다음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 감소의 변화추이를 보고하다.

지속적으로 대학 수입의 감소가 예상이 되며, 지출부분에서 역시 인건비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외자금 유치, 전임교원의 시수 증대, 시간 강사의 감소, 재학생의 중도탈락율 방지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고 타대학과의 연계 발전 방안도 고려중이며, 교육비 환원율은 유지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함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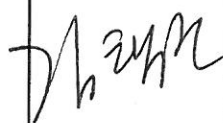

(의 장) 우리대학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인건비가 68%가 되는 것은 학교경영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는 것임을 언급하고, 구조개혁을 하더라도 여 설프게 해서는 안될 상황이고, 입학자원은 감소되고 인건비는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과통폐합의 부분들이 구성원들 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하다. 이어 학 과평가부분도 점수화 시켜 평가하는데 세부규정 등, 평가가 완벽하지 못하면 평가 자 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 같음을 말한다. 이어 발표한 사 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실 것을 의원들에게 요청하다.

(양의원) 통합할 때, 교수들과의 소통과 동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질의하다.

(기획예산팀장) 총장님과 부총장님과 함께 충분히 학과 교수님들과 상의를 했으나 앞으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미리 공지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과 데이터를 통해서 구조개혁의 근거로 할 수 있는 학과평가를 할 것이며, 강제적인 것은 마지막에 해야 하지만, 시기적으로 앞으로 3년이 가장 어려운 시기이므로 대학이 살기 위해서는 강제조정도 할 수 있으나 미리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지하여 학과에서 스스로 자구노력 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임을 말한다.

(장의원) 너무 갑작스럽게 구조개혁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다소 당황스러웠음을 언급하다.

(기획예산팀장) 이미 진행되고 있었는데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교수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는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말한다.

의 장 이명환		평의원 김택균		평의원 장수진	
------------	---	------------	---	------------	---

(장의원) 통폐합이 좋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조심스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컴정 쪽이 하위이지만, 시대의 조류에 따라 보건계열만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다.

(기획예산팀장) 마지막까지 가서 신입생 모집이 안되는 것보다는 현 시점에서 사회변화에 긴급하게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원조정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대학의 정책방향임을 말하다.

(김의원) 이제 어느 정도 금번 구조조정안에 대한 취지와 방향을 알겠음을 언급하고 부의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발의하다.

(의원들) 동의와 재청하다.

(의 장) 금번 구조개혁 정원조정안에 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사표시해 주시기 의원들에게 질의하다.

(의원들)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없음을 말하다.

(의 장) 이에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조정안에 대한 안건이 참석의원 전원이 찬성하므로 심의(안)대로 확정 선포하고 회의를 마치다. 회의록 간서명은 의장과 김택균의원, 장수진 의원이 하기로 의원들간 합의하다. (회의를 종료하다. 11:58분 산회)

2017년 4월 20일

대전보건대학교 평의원회 의 장 : 이 명 환

부의장 : 장 수 진

평의원 : 김 택 균

평의원 : 양 용 원

평의원 : 이 명 구

평의원 : 박 종 운

평의원 : 김 원 수

평의원 : 김 흥 수

평의원 : 황 철 하

평의원 : 김 석 주

평의원 : 이 현 진